

독서, 가장 지속가능한 문화활동

엄 연 숙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과 과장)

독서는 가장 일반적이고 또한 가장 지속가능한 문화활동이며, 도서관은 바로 그러한 지속가능한 문화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장소이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하는 독서에 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태는 이러한 말을 무색하게 한다.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독서량과 책과 관련한 지출규모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화활동의 대부분은 텔레비전 시청으로 보내는 것처럼 보인다. 사실, 공원이나 전철 안에서 익숙하게 책을 읽고 있는 사람들을 보는 것은 그리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독서 진흥 및 도서관 발전 정책은 결국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우리나라의 미흡한 독서활동과 독서환경을 바꾸어 가는 것은 공공의 책임이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갖는 것이 공공 부문에서 고민해야 할 일이다.

독서문화진흥정책의 목적

왜 독서를 해야 하는가? 왜 국민들이 책을 읽도록 해야 하는가? 독서진흥정책의 목적은 무엇인가? 정부가 제시한 독서진흥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보면, 독서 그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책에 길이 있고, 책에 지식이 있음을 배웠고, 책을 통한 교육을 받아왔다. 교과서와 참고서 및 참고도서들을 독서하면서 교육과정을 거쳐 왔다. 다만, 우리는 교과서를 읽고, 참고도서를 읽는 것을 독서활동으로 여기지 않는 문화도 함께 키워 온 듯하다. 왜 책을 읽는가? 많은 경우 학습을 위하여, 정보를 습득하기 위하여, 문자로 표현된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기 위하여 등 많은 개인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책을 읽음으로써 문화복지 실현, 사회의 지식경쟁력 강화, “책을 매개로 한 성찰과 소통으로 선진문화국가 확립 및 국민 행복지수 제고, 나아가 출판 산업의 건강한 성장” 등 다양한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 정말 책을 읽는 이유는 무엇일까? 독서의 목적은 개인적으로 다양하다. 어떤 사람은 학업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책을 읽는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특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일 수도 있다. 이 모든 독서활동은 모두 소중한 것이다. 이러한 독서활동이 모두 개인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활동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독서진흥정책도 다름이 아니라고 본다. 국민이 독서활동을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고, 그를 통

하여 행복지수를 높여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취직을 위하여, 학업성적을 높이기 위하여 하는 독서활동은 늘 조금씩 폄하되어 왔다. 그것이 젊은이들에게는 가장 광범한 독서활동을 이루고 있음에도 말이다.

정부의 독서진흥정책은 개인의 독서활동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원하고 그를 통하여 부수적인 집합적 목적, 즉 인쇄산업, 도서출판산업을 진흥하여 경제의 선순환을 이루고, 국민의 지식정보 습득을 통한 개인과 국가의 지식정보 경쟁력을 높여가는 것이다. 또한 독서진흥정책과 도서관정책을 통하여 정부는 사회의 건강한 성장과 문화적 통합을 이루어 나간다는 목적도 점진적으로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에서도 하나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가장 필요한 정책은 독서환경을 개선해야 하는 것이다.

독서환경의 개선

독서환경의 개선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은 독서 장소와 도서, 즉 책의 보급, 그리고 독서활동에 대한 장애를 없애주는 것이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거론되는 것이 도서관정책이 될 것이다. 그러나 “2007 국민독서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가장보편적인 독서 장소는 도서관이 아니라 가정이다. 그 가정에서 국민이 평균적으로 읽는 책의 양은 월간 1권에 불과하다. 또한 독서를 위하여 책을 구입하는데 지출된 비용은 연간 6만원 수준이다. 결국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필요한 책을 사서 집(62.3%)이나 사무실(12.4%)에서 읽고, 가끔 출퇴근 시 버스나 지하철(7%)에서 책을 읽는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비율은 3.7%에 불과하다.

도서관은 독서를 위한 장소 제공과 함께 읽을 책을 보급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도서관은 독서를 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도 될 수 있지만, 책을 구입하기 위하여 충분한 비용을 지출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읽을 책을 공급하는 중요한 장소이다. 도서공급이라는 중요한 역할은 서점이 함께 하고 있다. 그러나 서점에서 책을 사는 것은 많은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고 또한 근린에서 구입하기도 쉽지 않다. 도서관은 시민들이 쉽게 책을 빌려 읽을 수 있어야 하고, 또한 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우리 서울에는 국립도서관, 대학도서관을 비롯하여 각급 도서관, 문고 등 약 2000여개의 도서관이 있다. 2007년도 기준 서울의 대학도서관 등 학교도서관을 제외한 공공도서관의 연간 대출건수는 1천3백만권이 며, 이는 뉴욕의 단일 도서관의 연간 대출수준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¹⁾. 통계로 나타나는 우리 국민들의 독서량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도서관 부족, 장서의 부족 등도 그 원인이 될 수 있고 또한 국민들에게 독서가 생활화되어 있지 않은 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독서환경 개선 운동에는 도서관의 확충과 도서자료의 확보와 함께 국민에게 독서를 생활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도서관 확충

1) 뉴욕시 퀸즈보로의 필싱도서관은 일일 평균 8만권, 연간 2천5백만 권의 대출이 일어나고 있다. 필싱도서관 부관장 캐롤 셰퍼(Carol Sheffer)와의 면담에서 2008.3.24

특 집

과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보인다.

정부의 독서진흥기본계획은 독서환경조성, 독서활성화 프로그램, 독서관련 문화복지프로그램, 독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까지 총망라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이 많은 사업이 정작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지에 대하여 보다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기관 역시 도서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각급의 도서관이 도서관이용자-어린이이용자에서 노인이용자에 이르기까지 연령과 독서능력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과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그에 앞서 부족한 도서관의 확충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과 단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나누어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서울시는 도서관정책과 독서진흥정책의 추진부서를 통합하고 독서환경의 개선과 독서활성화 프로그램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있다²⁾. 그리하여 보다 효과적인 독서활동을 위한 도서관정책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해 나갈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독서 및 도서관정책에 대한 시민의 요구는 근린 또는 직장 근처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의 건립에 집중되고 있고, 도서관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시민의 요구에 맞는 자료의 구매가 원활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있기를 바란다.

우리 시는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같이 도서관이 발전된 나라의 사례와 같이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전문도서관과 일반도서관이 모두 건립되도록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다양하고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근린에 동사무소의 통폐합 등으로 확보된 공간을 작은 도서관의 건립으로 이웃에서 쉽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독서환경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향후 3년 내로 약 70개의 도서관이 추가 확보되는데 그 규모는 300㎡ 규모의 작은 도서관과 5000㎡에 이르는 중 규모 도서관까지 다양하다.

이외에도 독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숙자쉼터 복지관 등에 도서를 공급하여 독서 친화적 환경을 만들고 독서 인구를 높여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독서생활의 활성화

도서관확충 등의 독서환경의 개선과 함께 정부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독서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방향도 적극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우리시는 2004년부터 “책 읽는 서울” 프로그램을 시작하였고, 2006년부터 “한 도서관 한 책읽기” 사업 및 북크로싱 사업을 펼치고 있다. 또한 찾아가는 낭독회, 저자와 함께 학교를 방문하는 어린이 독서지도, 움직이는 서가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 문화예술과 도서관진흥팀

앞으로는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독서활성화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영·유아기부터 책과 친해질 수 있는 북스타트(Book Start) 운동과 같은 것은 간혹 선거법 등에 저촉된다는 논의가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균일하게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독서진흥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서관 및 독서진흥 조례 등에 명시하여 시와 자치구가 함께 정책으로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독서활동을 통한 사회통합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특히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가정복지 시설을 통하여 진행되는 결혼이민자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한글교육 프로그램을 독서운동과 연계하고, 노인계층의 문맹자에 대한 한글교육과 노령에 맞는 독서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역의 도서관과 복지관 등의 독서진흥 프로그램 지원정책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다수 노인들이 집합되어 있는 장소를 대상으로 독서교육 및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노인인구를 독서와 예술의 관객으로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의 문화예술교육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노인인구의 지속가능한 문화활동과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여기에는 독서활동과 도서관 이용에 대한 프로그램을 포함시켜 함께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필요한 조례의 제정 및 중장기계획의 수립 등 필요한 절차를 갖춰 꾸준한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마련을 완비하여 나갈 계획이다.

맺음말

책을 읽는 것은 가장 보편적이며 가장 저렴하고 그리하여 가장 지속가능한 문화활동이다. 독서는 생활이며 평생의 배움이고 평생의 즐거움이다. 책과 빛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활동이다. 공원에 서나 전철 안에서나 집에서나 책을 읽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그다지 많지 않다. 이른 아침에도 잠들기 전에도 차를 마시면서도 책을 읽을 수 있다. 아이들은 책속에서 꿈을 키우고, 책을 읽으면서 배움을 넓히고 책을 읽으면서 어른으로 자란다. 책을 읽음으로써 직장을 구하고 책을 읽으면서 일에 필요한 지식을 취한다. 또한 책을 읽음 그자체가 즐거움이 되고, 예술가들은 책을 읽으면서 영감을 얻고, 그리고 시를 쓰고 소설을 쓴다.

아이들이 맘껏 책과 함께 놀 수 있는 도서관, 누구나 편안히 이용하며 도시생활의 중요한 생활공간이 되는 도서관을 만드는 일부터, 집에서 가정에서 공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는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도서관의 확충과 독서생활 활성화를 위한 갖가지 일을 펼쳐나가는 데 우리 서울시가 앞서나가도록 하겠다.